

15. 동산 관리자(농부)의 길(1)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고 했는데 산 혼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정신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기능이 산 혼이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다. 지, 정, 의는 사람이 유독 강하고 확실하지만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조금씩 있는 기능이다.

창세기를 볼 때 창조는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보다는 완전하고 더 완전하게 지어져서 마침내는 사람이 지어진 것이니까 사람은 창조의 완성품이다. 다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혼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위치다. 사람은 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만들어도, 다 됐다 하더라도 이 기능이 잘못되어 버리면 무엇을 해 놓아도 마찬가지다.

성막으로 비교하면 혼은 금을 입힌 조각목과 같다.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신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로 어떤 모양을 깎아서 그 위에 금을 입혀 놓은 것이다. 금은 인장력은 좋지만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금만 세워 놓으면 힘이 없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뜻이다.

금은 항상 같지만 둥글게 표현되려면 조각목이 둥글어야 되고 네모나게 표현되려면 조각목이 네모라야 된다. 조각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금은 아니지만 금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것을 1장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신성만 충만한데 그 충만한 신성을 표현하려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금은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네모라야 하는데 둥글어도 안되고 둥글게 표현되어야 할 자리에서 네모가 나도 안된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는 말씀이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그 안에 있는 조각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나 성막의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오심으로써 은혜와 실재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같다. 율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율법으로밖에 표현이 안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표현된다. 사람의 어머함에 의해 제한을 받으나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주자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리학이 되었다. 고려 말에 주자학 중에 성리학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다시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갈라졌다. 주리론은 원칙론으로 하늘의 어떤 이치가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퇴계 선생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주기론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율곡 선생이다.

조선왕조는 이 두 학파 중에 퇴계의 주리론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임금으로서 유지하려면 원론적인 원리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임금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백성은 임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왕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퇴계의 주리론이 조선왕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율곡 학파의 천리(天理)는 사람에게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주기론은 이단으로 배척당하고 말았다. 주기론을 받아들일 경우 왕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잘못되면 하늘의 이치가 잘못 베풀어지게 되고 임금도 잘못하면 갈아야 된다는 말이 되니까 율곡 학파는 왕권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 학파였다. 율곡 학파는 기호학파가 되고 퇴계 학파는 영남학파가 되었다.

지금도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는 영남학파의 사상의 영향이 있다. 율곡학파에서 이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나오게 되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퇴계 학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이상대로 될 수 없으니까 계속 갈아 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므로 이상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시끄럽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 옛날에 유럽에서 스파르타식이 나왔다 망한 것처럼 망한다.

잘사는 나라는 전부 현실주의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정치는 현실이니까 정치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바탕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안에서 원리주의를 고수한다면

그 가정이 견뎌내겠는가. 부자간에, 부부간에 원리를 적용하면 못견딘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상적이지만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게 되었다. 종교는 이상적이다. 그것을 정치에 실현한 것이 중세다.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가 되어 많은 혼란과 희생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정교를 분리하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에는 사탄 종교라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제한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 다른 모든 자유도 제한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나 법률이 종교를 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그런 말이 나왔다. 만일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면 중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줄 수 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제한할 수 있다. 네 모가 되기도 하고 세모가 되기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나오고 저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나온다. 같은 신학을 공부해도 그러한데 정치에서 절대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나왔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것, 고정불변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주관할 것은 불교라도 한다. 기독교의 이상주의가 중세를 만들어 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가 무한 경쟁 시대로 나가는 시대니까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고정불변인 것이 있는데 불교는 고정불변인 것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불교가 맞는다는 말인데 과언이 아니다. 에덴동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지 몰라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흙을 만들어서 식물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흙은 절대적인 제한을 받아야 한다. 주인은 콩을 심었는데 팔 값이 더 좋다 해서 흙이 팔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혼을 주셨지만 그 혼은 절대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흙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농사가 안된다. 농부도 필요 없고 농사도 안되면 흙은 야산처럼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절대적인 제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자유를 부르짖어도 절대적 제한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제한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것을 제한하면 인간성이 안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위치가 정승의 위치다. 정승은 임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에게 절대적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정승이 이 절대적 제한을 이탈하면 역적이 된다.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한 없이 하게 되면 역적이 된다. 그것을 죄라고 한다. 위치를 이탈한 것이 죄다. 사람은 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상한 일이다.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사람은 깨우쳐야 된다고 하며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잘 안된다.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나 잘잘못을 안다 해서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문을 보지 않아도, 방송을 듣지 않아도 옳고 그른 것은 다 안다. 그런데 왜 안되는가? 옳고 그른 것만 알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정치 세계나 세상에서나 절대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된다. 정치는 그때그때 임시변통하는 것이고 문제를 조종하는 것이어야 되지 절대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온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치를 바꿔야 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도덕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상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다. 유교와도 다르고 불교와도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다. 선과 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표현할 인간을 찾고 있다. 그러려면 선악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 영의정을 찾는데 학문만 중요시하면 되겠는가. 그 사람에게 역심(逆心)이 들어 있는데 학문이 좋다 해서 영의정에 앉히겠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다. 선과 악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고치라고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갈대아 우르에게 잘 해봐라.” 하지 않고 “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 그들에게 “거기서 너희를 고쳐서 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고 광야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이렇다고 알게 된다.

우리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다.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바벨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벨의 종착점은 성을 쌓다가 무너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 불가능한 것이고 계속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것이다.

지금 과학도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분열되고 갈라져서 동과 서가 어딘 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것만 만들어야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 단지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융합 인재라는 말이 나왔다. 내가 아는 어느 교수님도 융합 인재 교육원을 만들어서 대학 내에서 키운다고 한다. 과학의 세계에서 그렇고 인문학적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론이 이론을 낳고 또 이론을 낳아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되어 버렸다. 철학이 처음에는 불이 먼저냐 물이 먼저냐는 식으로 단순했는데 지금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주 복잡해지고 말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답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다. 바벨론이고 바벨탑이다. 사람을 그렇게만 놓아두면 그렇게밖에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것은 제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서 생명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과 같다. 두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를 여장부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데리고 살면 질서가 파괴되고 만다. 그러니까 한 길로, 생명의 노선으로 가라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체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기계가 가는 길로, 지식이 가는 길로 가면 안된다. 생명은 지식을 만나면 죽어 버린다. 금붕어 한 마리를 지식으로 알아보려고 다 해부해 버리면 금붕어는 없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식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면 사람이 아닌 것이다.

가장 합리주의적인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생겼다. 독일에서도 그러했고 일본에서도 그러했다. 생체 실험까지 했다. 기왕 죽을 사람이니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실험동물처럼 실험해도 된다고 했던 것이다. 육백 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스를 이용했다.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칼로 하겠는가, 총으로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고안한 것이 가스로 죽이는 것이었다. 독가스로 잠들어 버리도록 만들면 비용도 저렴하고 일하기도 쉬우니까 가스로 학살하게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할 때 주동자를 심문을 했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고 한다.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칼에 죽거나 총에 죽는 것보다 얼마나 편하게 죽었느냐며 아무 죄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편하게 죽게 해 주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일이다.

일본사람들은 중국에서 생체 실험을 했다. 처음에는 어차피 죽을 사형수를 데려다 생체실험을 했는데 사형수가 없으면 산 사람이라도 데려다 실험을 했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 몇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실험의 자료를 넘기는 대신 일왕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미국에 넘겨주었다는 말이 있다. 미국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일본의 의학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듯 사람은 만들어진 대로 두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존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다. 산 혼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없으면 안된다.

통제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 현대 정신이다. 무한 자유는 통제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미국도 쇠퇴를 막을 길이 없다.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제한이 있는 종교가 방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교회가 재미없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자유를 제한해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다. 다 자기 자유대로 살고 싶지 제한을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교회는 제한이 없으니까 들어오기는 좋은데 들어와서 보면 자유 속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는 것 같아도 제한이 있다. 다른 데는 다 없어도 한 가지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면 동산을 나가야 한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서,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로지 방해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걸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한이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이 정말 잘 써 있다고 생각한다. '지으신 이가 있다.' 이것 자체가 제한이다.

불교에서는 지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며 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근본이 다르다.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절대적 제한에서 출발했고 그들은 제한이 없이 출발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만다.

다행히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

지 있다.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만 제한이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생명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다. 인간이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 해도 어차피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구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겠는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용서가 된 것이지 법적인 거래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좋다고 하지만 무슨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인가? 한 가지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 수용되지 않았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려웠던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밖에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무슨 죄가 또 있겠는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해결되었는가! 예수님도 죽었다. 신 같은 사람도 죽었다. 여기서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기독교가 그러하다.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람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신이라 해도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정상적으로 본다면 '저런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인데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봐야 한다. 그래야 정상이다. 사람이 먼저 보이지 신이 어디서 보이는가. 그러니까 '사람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네. 사람인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네. 사람인데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네. 사람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네.'라고 봐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고 그랬으면 해답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므로 십자가가 무효가 되고 말았다. 실망을 주다가 희망을 주다가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신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았던 것이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러저러하게 하게 하자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듯이 사람이 통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맞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알면 인생이 구원된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은 두 종류뿐이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도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 보는 것이 간단해진다. 사람은 다 다른 것 같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식도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끝이 없다. 그렇게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을 알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니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없다. 지식의 차이도 없다. 잘난 것, 지식의 차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불가에서는 '참 나'를 찾으려 일생을 노력하는데 '참 나'가 어디 있는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였어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다. 나는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지 못하지만 나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것이 나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핏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꾀는가? 물론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율법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율법 안에 가면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가 정해진다. 거기서 사람들은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1등과 100등이 다르다는 핏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 보이지 않는가. 무엇이 다른가? 지식이 많으면 십자가에 못박아도 죽지 않는가? 용맹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박아도 죽지 않는가? 장부요 용사요 유명한 자라 해서 십자가에 못박아도 죽지 않는가? 다 같다.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 인간 자체가 평등한데 더 평등할 것이 없다.

이것이 없으니 물질로 평등해져야 되느냐, 자유로 평등해져야 되느냐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어떻게 똑같이 가질 수 있겠는가. 물질이 평등하면 권력이 평등하지 않다. 권력의 격차는 엄청나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질만 평등하다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와야 모든 인간이 진실로 평등해진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같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한 것이다. 지식을 따라가면 바벨로 간다.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을 따라가면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앞이 안보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식이 좋아서 따라가는데 가 보면 분열인 것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악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다. 생명나무의 길은 이미 있는 길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니까 연구할 것도 없고 1등 2등으로 나눌 것도 없다. 그러니 1등을 하던 사람은 이 자리에 오면 허무해진다. 1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1등도 2등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면서 1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1등은 세상을 사는 데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세계다.

나는 한국말을 잘한다. 여러분도 다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나는 바보가 된다. 미국에서는 한 마디는 알아듣지만 소련에 가면 아예 한 마디도 모른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언어 능력 때문에 천재가 되고 바보가 되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한을 거룩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만일 내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일 능력이 있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면 더욱 제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무기는 더욱 제한을 받아야 되지 아무 데나 있으면 안된다. 소총은 사람이 들고 다녀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한 방에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나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 능력이 있으면 더욱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제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제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의 길과 지식의 길, 두 가지 길을 의미한다.

혼은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니까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만큼 제한을 받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그만큼 제한이 필요하다. 짐승처럼 살려면 제한이 필요 없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흠이 흠으로 있으려면 꼭 한 가지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 씨를 그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고 자기에게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내는 것이 흠의 사명이고 흠의 진실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하셨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제한이 없고 정치적인 제한밖에 모르니까 그 제한에서 해방되려고 인류가 싸워 왔고 지금은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미국 같은 사회는 정말 자유로운 사회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도 불만이 없고 부자를 존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산 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산 혼은 절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이 제한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다. 끊어지게 된다고 하신 것이다. 우주의 질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원래 목적했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아무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용도가 없어져 버리면 죽은 것이다. 내 인생이 멀쩡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해도 지으신 자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나와 지으신 자의 관계가 끊어진다.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지으신 자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원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TV에서 가톨릭 신부가 아담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담이 질서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듣기 어려운데 가톨릭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가톨릭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질서를 어겼는지 모르는 것이다. 개신교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톨릭처럼 따로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는 것 같고 그 신부는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위치 이탈이다.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질서가 파괴된 것이다.

기독교가 없어지면 미국의 젊은이들은 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독교가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데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뿐일 것 같다. 그런데 미국 사회

는 법을 중요시한다. 너무 자유로우면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관이 “손들어.” 해도 안듣지만 미국에서는 용서가 없다. “손들어.” 해서 안들으면 싸 버린다. 공권력이 그렇게 엄중하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둘러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유가 허용된 나라일수록 더욱 법이 중요하다. 그 법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깡패가 되고 만다.

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오면 너무나 자유롭다. 이미 제한 안에 왔으니까 더 이상의 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질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제한이 없는 세계로, 피조물의 세계로 온 것이다.

이상한 것은 ‘차라리 율법적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갈등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만 있다.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되는데 십자가 안에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없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까지 가야 된다.

선악과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법이 없어도 질서가 있는 세계다. 여름집회를 할 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외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통제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질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데서 그렇게 문제 없이 하려면 대단한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냈다.

이것이 ‘그 날’이다. 그 날이 오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날이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지 안된다고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어차피 우리도 희생을 치렀으니까 다시는 그렇지 않을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지, 다른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먹지 말고 먹을 것만 먹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생명나무로만 가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는 과정은 바벨로 가는 과정과 다르다. 이 노선은 생명의 노선이므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 염려이기도 하고 비꼬는 말이기도 한데 “이래서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서 되겠는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렇다고 율법으로 돌아갔으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율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문제다. 기독교냐 불교냐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탈된 자리에서 방황하느냐의 문제다. 이탈된 자리에서 방황하는 것이 백배는 어렵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길에서는 자기 의가 들어날 것이 없다. 자기 의가 문제가 안되고 자기 의라고 할 것이 없다.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바탕이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

원죄를 교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유의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근본에서 빛나간 것이다. 근본에서 빛나가면 고칠 수 없다. 한 번 노선이 정해지면 고칠 수 없다.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하지만 길이 다른 길이니까 고쳐지지 않는다. 바다를 향해가기 위해 만든 배를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면 되겠는가. 배에 바퀴를 달아서 육지에 다니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는가.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 육지를 가려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지 자동차로 바다를 갈 수도 없고 배로 육지를 갈 수도 없다.

두 길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다. 사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저절로 생겼으면 이려고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절로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저절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리는 모든 데 다 통한다.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런 것이 없이 우술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다 한 원리다. 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어디 가든지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배추든 무든 옥수수든 다 같다. 사람만 온 데도 갈 데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 온 데도 갈 데도 없다면 내가 황당해지기 때문이다. 자유자가 될지 모르지만 황당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눈에 안보이니까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지으신바 만물을 보면 그 지으신 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안보

여도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혼자 아기를 낳겠는가. 하나님은 안보이지만 둘이 연합하라는 그 말씀이 맞다. 둘이 아니고 홀로였으면 이미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천재들이다. 보면 다 아니까 우리는 다 천재다. 천재는 하늘에서 재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학재, 즉 공부해서 아는 것이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천재다. 천재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재가 예수를 알아 보는 것이지 배워서 예수를 알 수 없다.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천재만 알 수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풀을 알아보고 개와 소가 다른 것을 아는 것이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와 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든지 간에 교회는 다른 세계지 세상과 같은 세계가 아니다. 이것을 모르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다. 다른 세계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같이 보인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는가. 말씀이 안들리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이 들리면 그때 교회가 없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른 세계에 와 있으니 그렇게 알고 교회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같은 지구상에 사는데 세계가 다르니까 우리는 다 천재들이다. 알고 보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배워도 알 것은 다 안다. 세상에서는 천재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재다.